

현대제철 인천공장 지역사회 공헌 활동 앞장서



1 인천 동구에 5천만원 상당의 행복나눔 식권을 전달한 박병익 현대제철 인천공장 공장장(왼쪽에서 두번째) 2 지난 11월에는 '푸른 동구 만들기' 식재 행사에 4천만원을 전달했다.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 모든 곳이 어려웠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은 어려운 계층에 특히 더 취약하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코로나19로 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없지만,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공헌을 잊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

행복나눔 이·미용권과 식권 전달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매년 5천만원을 지원, 행복나눔 식권을 인천 동구 저소득층 1천 가구에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직접 찾아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11월 동구청에서 전달식을 했다. 9월에는 지역 내 이·미용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가정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복 나눔 이·미용권 전달식을 했고, 1가구에 5만원씩 총 1천 가구에 5천만원을 전달했다.

푸른 동구 만들기 나무심기 행사

11월에는 송현공원 인근에 왕벚나무 52주를 심는 푸른 동구 만들기 식재 행사를 했다. 이 행사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1억원을 투자해 진행하고 있는 뽕뿌리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8년에는 화도진 공원에서 배롱나무 등 1천400그루, 2019년에는 영산홍 3천100그루, 맥문동 5천300본, 왕벚나무 1주 등을 심고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책로 및 쉼터 조성도 했다.

명절맞이 선물세트, 전통시장 장보기, 쌀 나누기 행사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각각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250개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으며 현대시장에서 9개 복지관이 참여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런 행사는 매년 진행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현대제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진행했으며 코로나 극복 헌혈 캠페인을 펼쳐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노력을 펼쳤다. 앞으로도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찾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⑤

